

## ‘읽기 능력 신장과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노 명 완\*

(1) 지난 10 여년 사이에 국어교육은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 기능 신장 교육에서의 발전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에 개정된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4차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크게 방향을 선화하여 학생들의 언어 기능 신장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1992년에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5차의 미비한 점들 특히 지도 내용의 체계화와 지도 방법의 상세화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 기간에 편찬된 국어 교과서에서도 우리는 역시 많은 발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제 5차 교과서에서는 목표별 또는 영역별 편찬 체제를 띠면서 교수·학습의 과정을 사고 중심, 학생 중심, 활동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제 6차 교과서에서는 교사의 설명과 시범 그리고 학생의 연습을 강조하는 새로운 수업 방법을 도입하면서 수업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교과서 자료의 전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화하는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10여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발전은 국어교육의 학문적 발전이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측면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이론화

---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수업 현장을 고려한 교재 및 수업의 기술적(technological) 발달인 것이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 사대에 국어교육연구소가 설립되고, 그 주요 사업의 하나로 국어교육 각 하위 영역에서의 지도 내용에 대한 체계화 연구를 하게 됨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난 10여년의 실천적 발전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며 동시에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의 기초 마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되는 여러 연구들은 국어교육의 이론화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이인재 박사의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넓게는 국어교육 전체, 그리고 좁게는 읽기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과 실제적인 제언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는 읽기 및 읽기 지도의 개념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들 수 있다. 비록 미국에서의 읽기 및 읽기 지도 개념에 대한 역사적 변천 검토이기는 하나, 이러한 외국 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 처지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연구 및 개발 과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요즈음 미국에서 읽기 지도의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스키마의 활용, 학습 방법의 학습, 글 구조도의 적용, 자기 점검 전략 등의 수용 제안이다.

둘째는 1차에서 6차에 이르는 우리 나라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내용 변천에 대한 검토를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읽기 지도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 박사는 최근의 활동 중심 읽기 지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인지적 조절 능력까지 길러 주는 읽기 지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크게는 5차 그리고 좁게는 6차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당면하게 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방향 제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읽기 영역 내용 선정 및 체계화를 위한 방향 제시를 들 수 있다. 읽기 지도 내용의 선정 및 체계화의 방향 제시는 바로 본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너무도 미약하기에 이인재 박사의 제안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록 좀 막연한 느낌이 들기는 하나(이런 막연함은 세미나 주제 논문이 갖는 본연적인 제약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읽기 지도 내용의 범주를 크게 보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고, 인지적 영역을 다시 지식과 기능·전략으로 더욱 세분화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 좋은 방향 제시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는 미국의 읽기 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초인지적 기능, 그리고 우리 나라 1-6차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내린 비판에 기초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3)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 박사의 논문에서 읽기 영역의 이론화와 현장 지도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좋은 방향과 과제 제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이 박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학문 수준이 안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왕 이 자리가 그런 학문적 미성숙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할 과제로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읽기 및 읽기 지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개념의 사용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우리는 기능이라는 개념과 전략이라는 개념을 어느 때에는 상이한 것으로, 어느 때에는 혼용해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상위-하위의 위계적 관계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를 우리는 읽기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그리고 오늘 이 박사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의 문제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박사는 국어 읽기 영역의 내용 선정 기준을 '국어과'라는 측면(이 측면을 이 박사는 '학문성'에서 찾고 있다.)과 학생 및 사회로부터의 요구 또는 필요 측면을 검토하였으나, 이 두 관점은 많은 경우에 상호 배반적인 면을 띠고 있다. 그래서 학문성이 강조되면 실용성이 약하게 되고, 실용성이 강조되면 학문성이 약하게 되기 쉽다. 이런 불협화의 두 관점 중에서 어느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주제 논문은 명확

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을 학문성에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용성에 두어야 하는가, 또는 영역이나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은 '비단 읽기 영역의 경우'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전체에도 해당되는, 우리가 앞으로 깊은 논의를 거쳐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주장이나 결정에서 이론적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들고 싶다. 국어교육이라는 학문은 갓난아이와 같은 신생 학문이다. 이런 신생 학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의 하나가 바로 이론의 부족이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방법론의 미숙이다. 국어교육의 학문적 성격은 다른 일반 교육 그리고 교과교육과 마찬가지로 인문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에서의 목표, 내용, 평가 등 제반 결정 사항들이 구체적인 시간, 지역, 사회 속에서 개인 또는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과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어교육의 이론이나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인 사고나 탐구 방법론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찾아보려는 태도를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의견이나 주장이 사뭇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연구 방법의 객관화와 증거 제시의 부족 현상은 문법 교육이나 문학 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언어 기능 신장 교육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 평가이다. 대학수학능력 언어 영역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문학 등 국어과의 여러 하위 영역의 평가 목표를 한데 혼합하여 한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서로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의 특성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였는지, 각 하위 항목의 내용들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각 목표 항목 사이의 비중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며, 이런 평가 목표의 유목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준이나 준거 마련의 부족을 우리는 본 주제 논문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주제 논문에서 읽기의 지도 내용을 몇 가지로 하위 분류하고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분류, 유목화, 구조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범주들의 중요성이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근거 제시의 부족을 우리는 국어교육의 학문적 미숙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실증적 증거 위에서 의견이나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연구 태도는 언제나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어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국어교육을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는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어교육이라는 분야가 학문적으로 이제 갖 피어나는 새로운 분야인만큼 이 분야의 제일 앞에서 개척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고충은 지도 없이 갈 길을 찾아야 하는 밀림 속의 탐험가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처지이기에 초창기의 연구는 대범하기는 쉬우나 정교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시적이기는 하나 미시성이 부족할 수 있다. 오늘 이인재 박사의 주제 논문에 대한 나의 논평은 바로 이런 국어교육의 현실에 대한 논평이라고 봄이 좋을 것이다.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하는 국어교육 내용 체계화의 연구, 그리고 이 인재 박사의 공들인 본 주제 논문이 국어교육의 학문 발전과 실천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논평에 보이는 미진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아량을 구하는 바이다.